

진흥고 콜드게임승... 8강 '선착'



김도현 대회 첫 홈런포... 마산 꺾어 군산상 역전승... 경기고와 16강행

구미전자공고 1-2 군산상고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와 기동력을 앞세운 경기고가 16강에 안착했다. 타선이 폭발한 진흥고는 가장 먼저 8강에 진출했다.

군산상고는 16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6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이틀째 경기에서 구미전자공고를 상대로 2-1 역전승을 거두며 16강에 합류했다.

5회까지는 팽팽한 투수전이였다.

군산상고의 '잠수함' 박종훈은 5회까지 1피안타 3사사구 9탈삼진의 호투를 선보였고, 구미전자공고의 사이드암 김민곤도 4회까지 6개의 탈삼진을 뿜아내는 등 1피안타 3사사구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켰다.

6회 승부의 분수령이 됐다.

볼넷으로 6회를 시작한 군산상고 박종훈이 홈런포의 땅볼을 1루에 약송구하면서 무사 1·2루, 볼넷으로 무사 만루, 삼진으로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았지만 몸에 맞는 볼이 나오면서 밀어내기 1점을 내줬다.

하지만 6회말 군산상고의 반격이 이뤄졌다.

내야안타로 출루 한 선두타자 장혁이 회

색번트로 2루를 밟았다. 차희태의 내야안타로 1사 1·3루, 땅볼을 처리하던 2루수가 공을 놓친 틈을 타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왔고, 이어진 1사 1·3루에서 이준영의 희생번트가 성공하면서 2-1이 됐다.

6회 짜릿한 역전극에 성공한 군산상고는 7·8·9회를 실점없이 막아내며 1점차의 승부를 지켰다.

세광고 1-3 경기고

기동력을 앞세운 경기고는 세광고를 2-1로 제압했다.

1회부터 경기고의 리드가 시작됐다. 1사에서 중전안타로 출루한 오윤석이 도루로 2루를 밟았다.

이성곤의 볼넷으로 1사 1·2루. 조우형의 유격수 앞 땅볼 때 선행주자가 아웃됐지만 2루수 송구실책이 나오면서 3루 주자가 홈인했고, 타자는 2루까지 진루했다. 경기고는 김민준의 2루타로 1점을 보태며 2-0을 만들었다.

세광고는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을 맺은 에이스 김선기를 투입하면서 추가 실점을 막았다.

2회 선두타자 남광현의 안타로 세광고의 추격이 시작됐다. 볼넷과 유격수 앞 땅볼로 3루까지 진루한 남광현은 투수 강진성의 보크 때 홈을 밟으며 2-1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점이 세광고의 유일한 득점이었다.

경기고는 6회 강진성의 적시타로 1점을 보태며 3-1로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5이닝을 2피안타 1사사구 6탈삼진 1실점

으로 막아내며 승리투수가 된 1학년 강진성은 타석에서도 볼넷 하나를 포함 3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하며 승리의 수훈감이 됐다.

진흥고 10-1 마산고

다이너마이트 타선의 진흥고가 마산고를 상대로 7회 콜드승을 거두고 가장 먼저 8강에 올랐다.

부진승으로 16강에 진출했던 진흥고는 마산고와의 경기에서 대회 첫 홈런포를 터트린 김도현 등을 앞세운 폭발적인 공격으로 10-1로 승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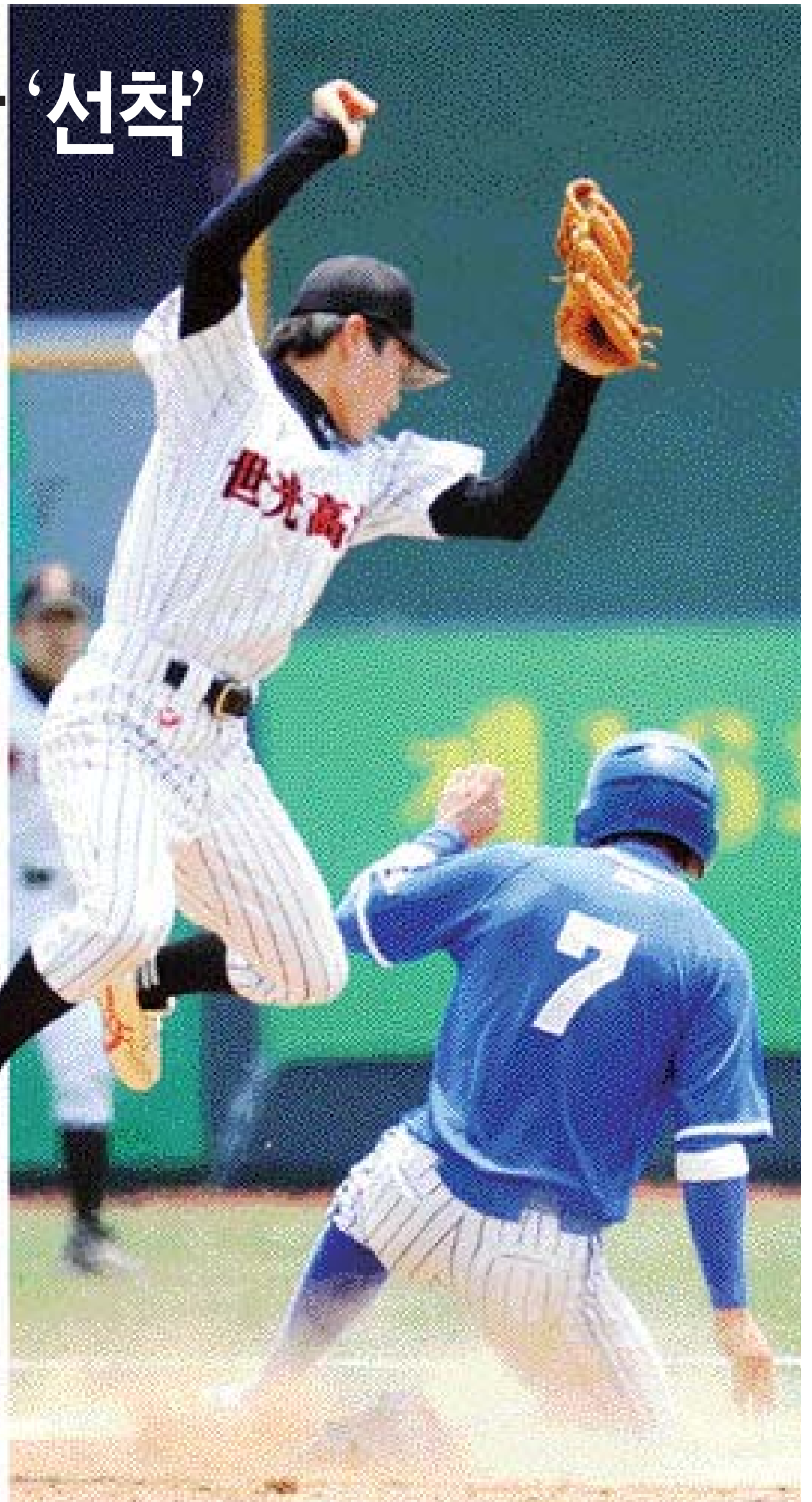
0-0의 승부가 이어지던 4회 임병훈의 발이 잠자던 타선을 깨웠다. 볼넷에 이어 도루로 2루를 밟은 임병훈이 투수의 견제구가 빠진 사이 3루까지 내달렸고, 이태호의 희생플라이 때 홈에 들어왔다. 진흥고는 4회에만 3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며 2점을 뺐었다.

마산고는 4회말 2사 3루에서 포수의 2루송구가 빠진 사이 3루주자 황동진이 홈을 밟으며 1점을 만회했지만, 5회 볼넷 터진 진흥고의 타선을 막지 못했다.

5회초 1사 2루에서 임병훈의 2루타가 나온 뒤 김도현의 대회 첫 홈런포가 이어지는 등 진흥고는 거침없는 공격으로 대거 4점을 뺐어냈다.

진흥고는 7회 무사 만루에서 최용제의 싸늘이 3루타에 이은 이주호의 희생플라이로 10번째 점수를 채우며 10-1의 콜드승을 거뒀다.

/위지랑기자 jrwi@kwangju.co.kr



16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6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 대회 1차전인 세광고 와 경기고 경기. 1회말 중전안타로 나간 경기고 오윤석이 이성곤 타석때 2루 도루에 성공하고있다. /위지랑기자 jrwi@kwangju.co.kr

父傳子傳... 야구인 2세 돌풍

〈부전자전〉

이순철 전 LG 감독 아들 성곤 군

심판위원 강광희씨 아들 진성 군

투·타 맹활약... 경기고 승리 견인



경기고 이성곤 선수(오른쪽)와 강진성 선수.

경기고가 '야구 2세'들의 활약 속에 세광고를 꺾고 16강에 합류했다. 5이닝을 2피안타 1사사구 6탈삼진 1실점으로 막아낸 '당돌한 1학년' 강진성(1년)은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위원인 강광희씨의 아들. 4명의 타석에서 모두 출루에 성공한 유격수 이성곤(3년)은 이순철 전 LG 감독의 아들이다.

세광고 에이스 김선기(3년)과의 맞대결에서 한 치 양보 없는 배짱 투구를 선보인 강진성은 투·타에서 모두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강진성은 특히 지난 4월에 열린 제43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도 쟁쟁한 선배들을 누르고 4번타자로 맹활약하며 팀의 4강을 이끌었다.

이성곤은 걸음걸이나 슬라이딩을 하는 모습까지 아버지를 꼭 닮았다. 하지만 우투우타의 외야수였던 아버지와 달린 우투좌타의 이성곤은 경기고의 유격수를 맡고 있다.

출발은 좋지 않았다. 세광고의 공격이 펼쳐지던 1회초, 땅볼을 처리하던 이성곤이 1루에 약송구를 하면서 실책을 기록했다.

이성곤은 "1회 긴장을 많이 해서 실수를 했다"며 "하지만 실책 이후 더 집중을 하면서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안타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이성곤은 4타석에 들어서 볼넷 3개와 상대 실책으로 걸어가는 집중력을 보였다.

이성곤은 "상대 투수가 고교야구에서도 손꼽히는 에이스 김선기였기 때문에 출루를 한다는 생각으로 타석에 섰는데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6회에는 강진성과 세광고의 추격을 뿌리치는 결정적인 점수도 합작했다. 6회초 볼넷을 끌리던 뒤 도루에 성공했던 이성곤은 강진성의 중전 안타 때 홈에 쇄도하면서 3-1을 만들었다.

선발투수로 나선 강진성은 5회까지 1실점으로 세광고의 타선을 붙여막았다. 특히 1학년에 불과하지만 매회 삼진을 잡는 등 6탈삼진

의 공격적인 피칭으로 투수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강진성은 "직구 구속은 134km에 불과했지만 슬라이더를 잘 활용해 승리투수가 될 수 있었다"며 "아직 어린 나이에 만큼 열심히 운동해 박찬호 선수를 뛰어넘는 위대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야구선수가 되는 것을 반대했던 두 아버지는 이제는 이들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가정교사다.

이성곤은 타이거즈의 첫 신인왕이자 마지막 신인왕으로 남아있는 아버지의 명성에 비하면 아직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열심히 해서 나만의 야구 세계를 펼치고 싶다"며 "팀의 무등기 우승과 청소년대표 선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1학년 강진성은 "야구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열렬한 후원자인 만큼 그 기대에 보답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진흥고 김도현 홈런포함 2안타 '든든한 3번타자'

무등기 스타

"직구를 노리고 타석에 들어섰는데 맞는 순간 홈런을 직감했습니다."

16일 광주 진흥고의 3번 타자 김도현(2년)이 지난해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준우승 팀인 마산고를 맞아 대회 첫 홈런을 때리는 등 3타수 2안타 2득점 1타점을 맹활약으로 팀의 1차전 승리를 이끌었다.

김도현은 4회 안타를 때려내면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좌전안타로 1루까지

진루한 뒤 최용제의 안타로 팀의 두 번째 득점을 기록했다. 5회에는 이번 대회 첫 홈런을 때리며 대량 득점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도현의 홈런 이후 크게 흔들린 세광고 투수 김지훈을 맞아 진흥고는 5회 4점, 7회 4점을 더 뽑아 10-1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김도현은 "올해 전국대회에서 진흥고가 한 번도 8강에 올라간 적이 없어 긴장하며 경기를 했는데 좋은 결과를 내 기쁘다"며 "팀의 전력이 탄탄한 만큼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79cm 키에 83kg의 다부진 체격의 김도현은 서석초-동성중을 거쳐 진흥고에서 맹활약 중이다. 특히 이번 무등기를 통해 자신의 전국대회 첫 홈런을 기록하는 등 본격적인 중장거리 타자로 발돋움하게 됐다.

김도현은 "일본에서 활약 중인 이승엽 선수를 뛰어넘는 홈런타자가 되는 게 꿈"이라며 "웨이트 트레이닝과 기본기를 다지는 데 노력해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